

동기 보건 계몽 및 진료일기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3년 한소피아

1965년 12월 26일

누군가의 살뜰한 보살핌의 덕분인가 날씨가 껍이나 포근했다. 대원 13명은 아침 8시에 청주행에 승차, 자그마한 知識이나 他人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흐릿한 마음인가 무뎠을 환한 표정들 각 학교와 제약회사에서 성의껏 모아온 약품 8 box, pamphlet, 80여개의 gift box, 달력뭉치, 상품, 선전용 소책자 등이 5일간의 보건계몽 및 진료를 위한 알찬 밑받침을 해주었다. 11시 30분 청주역에 도착. 미리 마련된 적십자 엠브란스로 청주간호학교를 방문. 피곤한 여독을 잠시 풀고 청주에서 30리 떨어진 강내면 월곡리로 출발. 그곳에 도착하니 모든 住民들이 환영. 게다가 취사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다. 이 뜻하지 않은 호의에 일행은 어리둥절.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일 일체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도착하기 이틀전 부터 청주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선전을 해주었다. 이리하여 계몽전부터 마련된 행동령 제1조 “핀

페는 절대 꺼치지 않는다.”는 여지없이 두너지고 말았다. 짧은 기일이나마 청원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는 잠바 스타일 군수님의 말씀과 住民들의 알뜰한 精誠에 두어깨가 무겁다. 일행은 내일의 진료에 관해 의논하고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고는 친절과 봉사를 다시 한번 다질해본다.

12월 27일

월곡리 문화관에 책상으로 만든 약제실, 침대 하나와 병풍을 두른 진찰실, 의자로 잇대어 놓은 대기실, 스토브 위에서 보글 보글 끓는 주사기, 그 옆이 처치실 이렇게 자그마한 사랑의 병원을 꾸며 보았다.

첫 날이라 60여명의 진료로 하루를 마쳤다. 생전 처음해 보는 history taking이 정말 재미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씨유” 발음대로 적다보니 어딘가 이상하다. 아하 여기가 충청도이지 재치있게 알아 듣지 못한 자신이 껍이나 우습게 느껴진

다. 오후 5시에 진료를 마치고 7시부터는 4group으로 나누어 ① 산전 산후설생과 부인과 질병 ② 육아관리와 이유식 만들기 ③ 가족계획과 유아질병 ④ 농번기 관리이상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월곡리, 사인리, 석화리, 석소리로 보건계몽에 나섰다. 내가 간 group은 가족계획 “가족계획이란 아기를 조금만 낳게 하는 것이 가족계획이 아니라...” 무언가 크게 自然의 섭리를 거역한 것 같애 마음이 안스럽다. “달만 낳는 것은 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남자의.....” 예로부터 뿌리 깊이 박혀진 인식의 뒤틀림인가 호롱불을 앞에 놓고 p양의 얘기를 듣는 얘기엄마의 눈이 유난히 반짝인다.

12월 28일

후한 충청도 인심 탓인지 날씨가 딱 따뜻했다. 우리를 찾아 오는 손님도 아침부터 성황, 접수구의 K양은 일렬로 줄세우기에 바쁘고 반백이 다된 의사선생님이 안경너머로 회심의 미소를 보내곤 하신다. 이들의 대부분이 명치끝이 아프다. 속이 메스거리고 머리가 무겁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 특히 홍분주위가 가렵고 하얀 벌레가 나온다는 코짹짹이 얘기들이 부지기수다. 영양실조로 누렁계 뜯 가여운 아기를 데리고 온엄마께 의사의 처방대로 종합 비타민을 드렸드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겠느냐고 나가시던 문 다시 밀고 들어서

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신다. 저녁 늦게는 빠방타고 청주가서 사왔다는 A양의 님의 선물에 환호성을 올리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본다.

12월 29일

진료 3일째, 어제보다 더 호경기, 몸을 도끼삼아 일해왔드니 허리가 아프시다는 할머니, 고달픈 주름살을 이마에 모으신다. 학교에서 배운 “Quality rather than Quantity”를 목표로 한 알의 약이라도 정확히, 한사람을 치료해도 세밀히 누가 먼저 말했는지 대원들의 가슴에 붙은 red cross가 빙그시 웃는다. “한 약국장님 잠이안오는데 소화제 줘...“하는 말장한 머슴애가 앞뒤다고 느껴진다”

월곡리 李氏宅 사랑방에선 꿀 꿀 꿀뻘이 하는 “쇠지 삼형제”노래를 초롱 초롱한 눈망을 60개가 까까머리 선생님 지휘에 따라 제비같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열심히 배운다. 다음 노래잔치 맨 꼭 상을 타겠다면서 오늘 배운 노래를 뛰어다니며 부르는 주인공 도령님의 볼이 오늘은 유난히 빨갳다.

오후부터 내리는 흰 눈을 맞으며 희미한 전지로 낫선 눈두렁 길을 밟으며 계몽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 끝에 높다란 고목에 걸린 초생달의 사연이 정겹다.

12월 30일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흰까운 앞

락은 약품으로 얼룩져있고 빨갭게 얼은 손들이 무척 값 있어 보인다. 준비해온 gift box를 가지고 월곡리 83세대를 가가호호 방문. 모범부락으로 표창받은 이 곳이라 부엌 시설이 제법 늘랐다. 조리대와 개수대가 뽀얀 흰가루로 뽀뽀있게 발라져 있고 앞마당이 말끔히 치워져 있다. 하지만 변소 시설은 아직도 요원하다. 산후 출혈이 심해 찾아 왔노라는 젊은 부인의 뺨기없는 얼굴, 폐병으로 진단받은지 2년, 그 동안 돈이 없어 약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는 중년 아저씨, 매일 매일 이들이 우리들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살려서 화가 나기도 한다.

진료마지막 날이라 약품정리와 함께 구충제를 나눠주고 용법을 묵이쉬도록 설명해주고 약포지에 써주기도 했다. 진료를 마친후 오물태우는 냄새가 매콤한게 가슴을 부풀게 만든다. 이때 혈레벌떡 달려온 아주머니 치마자락뒤엔 얼룩진 얼굴의 아이가 있다 “열집아가 달력을 가져왔다는데 우리아이에게도 뉘 줘주세요” 아무리 찾아 보아도 달력은 없다. 마침 예쁜 병이 있어서 주었더니 코쟁이녀석 만족한 웃음을 띄우고 달려간다.

방금 예약해 둔 영화 film이 도착. 상연해주고 저녁 10시엔 이장님이 하동리어른들의 송별 파티 파분한 칭

찬과 아주머니네들의 떡 선물에 아가씨들 호뜻한 미소와 함께 귀끓이 빨갭게 물들었다.

12월 31일

이해의 마지막 날이며 부족하나마 성의껏 엮어 본 몇일 동안의 보건계몽의 끝날이라 모두들 야릇한 쏘정. 아침 9시 30분차로 청주를 향해 출발. 석별의 정을 마냥 아쉬워했다.

총진료 인원수 6백명 남짓, 그중 내과가 3/4을 차지했고 다음이 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순이다.

청주간호학교에서 다과를 베풀어 주셨고 교육감과 청주군수님이 감사장과 선물을 주셨다. 와-하고 터지는 환호성, 청주 특산의 진주 복걸이 (비록 인조일 망정) 알알에 충청도의 정을 새겨주시고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는 Y선생님, 저희가 이곳에서 배운 말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유쾌한 웃음을 던지는 S양, 청주 방송국 인터뷰에서도 이 곳 인상은? 이란 질문에 충청도 인심 문자 그대로 좋습니더라고 다시 한번 강내면 일대 주민들의 협조에 감사하며 5일간의 계몽에 알찬 성과가 있기를 비는 마음에서 기차의 여음속에 푸근히 몸을 실어본다.

이 원고는 간호학생회에서 5일간 월곡리에서 보건계몽간호 실태를 실은 것이다.